

『근대적 공간의 한계』(2002)

— 삼인 권, 최병두(대구대학교 교수) 지음, 375쪽

김용창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한 때 누구나 믿었던 것들이 몰락하고, 마침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들이 사라지고 유동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시대에 『근대적 공간의 한계』라는 무거운 책 한 권이 나왔다. 저자인 최병두 교수는 재미있는 지적 편력의 소유자다. 1980년대 후반에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푸코, 하버마스, 기든스 등의 이론에 기초한 공간이론을 좌파 사회과학계에 발표했다가 강고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전선을 흐트린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그 후 당시에 품미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치열하게 공부하였고, 그 후 마르크스주의 공간이론의 건설에 오랜 동안 매진한 결과가 이 책이다. 당시의 많은 강고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새로운 안식처로 푸코, 하버마스, 기든스에 의존하고 있거나 새로운 등지를 찾아 떠나는 지금을 생각하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 주장은 현대 사회생활의 이해와 실천에서 공간이 근본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 그것도 역사가 끝났다는 이 시대에 마르크스주의 공간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공간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은 아니다. 사실 근대이론은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라고 할 수 있다. 진보, 발전 등의 약속은 모두 시간이라는 척도로서 이해되어 왔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시간표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공간표라는 단어

는 낮설다.

우리시대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공간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푸코의 언급 등 최근 사회과학계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개념의 복권이 진보정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단순한 차이의 물적 토대, 자기완결적인 폐쇄체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공간론을 건설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부질없는 무용한 정열의 소산이라는 주장에 강력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공간정치경제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극복하려는 저자의 욕심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쟁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제는 공간의 생산, 도시화, 지방자치, 세계화, 삶의 질, 건축경관, 소비, 생태환경, 지정학, 공동체운동, 유토피아 등으로 광범위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모든 주제에 대해 이론적 쟁점을 정리하고 마르크스주의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저자의 방대한 지적 편력이 놀랍기만 하다.

저자는 현대의 공간문제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공간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본에 의한 공간의 정복논리를 집요하리만큼 주장한다. 도시공간은 상품생산을 위한 자본과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토대(58쪽), 자본축적의 논리는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의 시공간을 지배함(65쪽), 포스트모던 건축양식과 그 상징성은 가치실현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새로운 대응양식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함(234쪽) 등 책 전체에 전개되어 있는 이러한 주장은 현대공간이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의 기능공간이라는 저자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간자체의 상품화 메커니즘이 빠져 있다. 공간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하부구조적인 측면과 더불어 마르크스의 말처럼 시장에서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상품으로서 공간임대료 수집의 물적 토대, 자본이득 창출대상 측면이 있고, 저자의 주장을 보다 엄밀하게 전개하려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본주의 공간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여기서 지리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각종 포스트주의적 실천론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공간은 자본주의적 기능공간이면서 그 존재양식은 사회적 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반영하고, 자본과 노동 간의 내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69, 57쪽) 공간문제와 관련한 실천은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해결하는 것과 연계되지 않고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예컨대 도시사회운동은 신보수주의적 시민사회운동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74~75쪽), 계급정치로부터 분리된 생태정치는 신비주의나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273쪽).

따라서 포스트주의 정치전략의 토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공간이 만드는 차이에 입각한 정치’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자는 본다. 사실 장소 또는 공간에 대한 감수성은 차이의 원천이고, 인간실존 및 개인 정체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geopolitics)적 감각(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과 결합할 때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영감을 주었던 하이데거가 나치즘에 경탄을 보낸 것처럼 특정 시공간에서 지역중심주의적인 전체주의로 쉽게 빠져든다. 우리는 지역감정에 기반한 못된 투표행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적 사고로 제시하는 것이 공간의 구체성을 반영한 사회공간적 과정으로서 유토피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하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시하는 유토피아(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공간적 불균등 발전이 내포하는 공간적 구체성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하비의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 유토피아 건설은 자본주의 역사지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공간론을 통해서 현대 사회문제의 극복과 사회과학계의 방랑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에서도 흠집이 다소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려다 보니 개념이 모호한 용어와 추상

적인 용어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독자를 거슬리게 만든다. 이 책의 분석 주제인 근대적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것은 물론, 계급독점지대, 탈자본주의적 시장기능, 신 마살적 결절, 인식적 지도의 심미화, 초테러리즘, 지문화학, 증충적 공동체 등등 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발표했던 글들을 편집하다 보니 내용의 중복이 많이 나타나면서 내용 전개의 조밀함이 떨어진다. 또한 엄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은 선언적 주장이 많은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한국의 포스트모던 건축은 자본의 새로운 대응양식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서양의 고전적 건축양식 몇 가지를 조합하거나 유사한 양식을 복제하는 수준에서 표준화되어 있다는 주장은(243쪽) 건축가들의 반발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대안전략 제시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많이 보인다. 공동체복원을 위한 아파트주민운동은 세계적 차원에 내재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 생산양식을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선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372쪽) 우리는 저자의 실천전략제시에서 '지적 힘겨움'을 볼 수 있다.

최병두 교수의 『근대적 공간의 한계』는 누워서 볼 수 있는 만만한 책이 아니다. 그러나 지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완독하는 독자에게 그 만한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주고 남는 책이다.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Company Tow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eon, Chang Heu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recent issue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ompany Towns and to explore desirable directions for equal regional development. A Company Town is defined as a city where one or few firms play a domin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regional economics. The city may be developed with a prior plans or recognized as post hoc. As opposed to its expectations, such city cannot enhance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achieve the goal of equalized regional development. Rather, it is most likely to become an 'Island of Development', resulting in detachment from the regional community and disregard for the welfare of its residents. Relative to Company Towns, regionally-specified cities considering of variety of demands and needs of private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attain the goal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industries. They should be developed by the consortium comprising of representatives from the local community, regional firm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

Key words: Company Town, growth coalition theory, regionally-specified c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